

## 이런 번역자를 원한다

한결같은 소원은 "정확한 번역 원고"

글\_원종국(문학과지성사 편집부)

**통**역이 말(言)을 옮기는 일이라면 번역은 글(文)을 옮기는 일이다. 의미상 번역 또한 통역의 범주에 들 것이나, 그 일의 특성과 역할 면에서 보자면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방송 같은 특수한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통역은 대개 '1:1'의 의사소통을 담당하지만 번역은 대부분 '1:다수多數. 책을 접하는 모든 독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게 된다. 통역을 사이에 둔 당사자들이 청각 언어 외에 표정 동작 등 여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데 반해 책을 읽는 독자는 순전히 번역자가 나열한 문자의 조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막중하고도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번역자가 통역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있다. 통역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두 당사자와 같은 시공간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면 번역자는 그와 같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두부터 다소 장황한 설명문을 붙인 것은 번역 일의 특수성을 환기하기 위함이며, 센스 있는 독자라면 벌써 눈치를 챘을 것이되, 번역자가 접한 유리한 조건을 강조하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여러 편집자의 의견을 청취한 바, 그들이 번역자에게 한결같이 소원하는 것은 (더함도 덜함도 없이) "정확한 번역 원고"였다. 물론 "나랏말싸미" 다른 상황에서 '정확'한 번역을 해달라는 요청은 다소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번역자의 작업은 오역(誤譯)에서부터 기술(技術)을 지나 예술(藝術)의 경지에 이른 번역까지 다양한 결과물을 내놓게 되는 터이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며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모책 소설이 오역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자 결국 재번역을 결정한 것, 그리고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이 내놓은 연구보고서 때문에 내노라하는 번역자

들이 망신을 톡톡히 당한 사례는 모두 번역자의 기본 소양을 저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번역이 소수만의 특권이던 시절은 지나간 지 오래되었으며, 서슬 퍼런 독자들의 시선을 무시했다가는 그 즉시 오역자(誤譯者)로 낙인찍히는 시대가 본격화한 것이다.

물론 편집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번역 원고의 완성도가 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제자들을 시켜 각 장(章)마다 초벌 번역을 시키던 일부 교수들, 그로 인해 앞뒤 원고 내용이나 문체에 차이가 발생하던 일, 그리고 원서(原書)의 특수성이나 독자의 생소함을 감안하지 않아 '편집자주註'를 일일이 달아줘야 했던 상황들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그러나 번역자가 '부(副)저자(책 표지에 번역자를 저자 옆에 나란히 적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편집 행위이다)'로서의 영역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원고에 대한 애정과 열의가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장악하지 못하는, 그리하면 '문장의 오역'은 아닐 수 있으나 '문맥의 오역'을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능한 한 원저자의 입장에서 원서를 바라보고,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면 알 때까지 연구해 원고에 반영하는 자세도 필요할 터이다. 서두에도 적었듯이, 번역자는 시공간의 제약을 덜 받지 않는가. 요컨대 번역자는 통역에 비해 훨씬 더 학문적인 마인드와 장인정신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의 전언(傳言)이다. 게다가 좋은 외국어 원서를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는 중차대한 일임에야.

사실 뒤늦게 밝히자면, 번역자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은 편집자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덕목일 것이다. 그렇다면, 번역자가 편집자에게 소원하는 것은 (더함도 덜함도 없이) '완벽한 책 출간' ? **★**